

# 새만금에 대규모 국립수목원 들어선다

총사업비 1530억원 들여 151ha 규모 2026년까지 완공  
희귀·멸종 해안 식물 보전, 방염·방풍·염생식물 연구 목적

김제시 광활면 새만금 개발지역 농업생 명용지(6공구)에 151ha(건축연면적 2.1ha) 규모의 국립새만금수목원이 2026년까지 들어선다. 총사업비 1530억원이 투입될 이 수목원은 해안형 수목원으로 국내외 해안 생물자원 수집, 증식을 통한 희귀·멸종 해안 식물 보전과 방염·방풍·염생식물 연구와 전시를

통한 선진 생태·문화 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조성된다. 산림청은 지난 8일 국립새만금수목원 부지에서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는 식물, 토목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들과 전북도, 김제시 등 유관기관 담당자 20여명이 참석했

다. 참석자들은 적정 수종 도입방안과 해풍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풍림 배치방안, 명소화를 위한 랜드마크 도입방안 등을 모색했다. 국립새만금수목원은 간척지라는 특수환경에서 조성되는 만큼 염분, 해풍 등 식물의 생장 제약을 극복하는 효율적인 관리기술이 사업 성공의 핵심요소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림관리, 식물보전, 토목시공 등 각계 전문가를 기본계획 단계부터 참여시켰다.

산림청은 식물자원의 보전·활용 전초기지라는 수목원의 본래 기능 외에 새만금지역의 친환경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예정이다. 이종건 산림청 수목원 조성사업단장은 "과거의 산림녹화 성공 경험을 간척지에도 재현하려면 다양한 분야 전문가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수목원을 성공적으로 조성해 새만금지역의 변화와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순창군, 콩 선별작업장 운영...노동력 절감 효과

장류의 고장 순창군이 장류산업의 근간이 되는 콩 재배 확대와 편의를 위한 콩 선별장을 운영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 12일 순창군에 따르면 군은 매년 농가들의 노동력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콩의 정선 및 선별 작업과정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 콩 선별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콩 선별 작업은 구립면 사골 소득 개발 시범포에서 진행되며 비용은 무상으로 진행된다. 5대의 콩 선별기를 운영하면 하루 최대 12t 가량의 선별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 콩 선별장을 운영해 210t 가

량의 선별작업을 진행했으며 올해는 400t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선별작업은 장류공과 나물공은 다음달 22일까지, 검정콩은 다음달 1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우리군은 장류산업의 기반이 되는 콩 재배를 계속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다"면서 "지역 농민들이 최대한 편하게 콩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콩 선별장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많은 농민들이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콩 선별기 사용을 원하는 농민들은 치유농업계(063-650-5154)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정영근 기자 jyg@



남원시, 치매안심센터 개소...임상심리사 등 인력 확보

남원시가 최근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사진> 남원시보건소 부지에 새로 신축된 치매안심센터는 지상 2층, 연면적 469㎡ 규모로 사업비 9억9500만 원이 투입됐다. 치매안심센터에는 사무실, 상담실, 검진실, 프로그램실, 경중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한 단기 쉼터와 가족을 위한 가족카페를 설치해 치매어르신들의 초기 안정화와 치매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한다. 치매안심센터는 보건소장을 센터장으로 전문인력 간호사와 작업치료사, 임상

심리사, 사회복지사 15명을 확보해 상담 등록관리팀, 조기검진팀, 쉼터팀, 가족지원팀, 인식개선홍보팀 등 5개 팀으로 운영된다. 또, 치매상담, 치매조기검진, 치매진단, 치매환자와 가족지원을 위한 각종 인지 프로그램, 찾아가는 치매상담, 예방교실 운영,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을 연계하는 치매통합서비스도 제공하게 된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고창군 러시아 방문단 일행이 러시아 모스크바주 농업 관계자들을 만나 수박과 멜론 등 고창군 농산물의 우수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고창군 제공>

## 고창군, 지역 농·특산물 러시아 수출 적극 추진

최근 모스크바주 방문 시장 개척·농업기술 교류 협력 논의

고창군이 지역 농·특산물의 러시아 수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고창군은 러시아를 겨냥한 근차원의 방문단을 구성,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주를 방문해 농업관련 시장개척과 농업기술교류에 나섰다. 방문단은 지난 10월 고창군을 방문한 러시아 농업전문회사인 말리노 그룹의 초청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적극 추진했다.

고창군 방문단은 체류 기간동안 러시아 말리노 그룹의 계열사 농장을 방문하고 현지의 대형유통업체 시장조사과 모스크바주 농업부 장관을 만나 면담을 통해 고창 농·특산물 수박, 멜론, 딸기 등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말리노 그룹은 러시아 내 감자, 채소, 유제품 등을 생산하고 러시아 전지역 3000여곳에 유통망을 갖춘 농업회사로

고창군과 우호협력을 통해 농업 재배 기술교류, 고창 농·특산물의 러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유통지원과 교류를 협력하기로 했다. 고창군과 모스크바주는 상호우호협력을 통해 농업 재배 기술교류와 고창 농·특산물의 러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유통지원과 시장정보 교류를 협력할 예정이다. 유거상 고창군수는 "고창군과 말리노 그룹은 모스크바주와의 교류가 농생명식품 산업 수도로 나아가고 고창군에 귀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이번 방문의 의미를 밝혔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

## 정읍시, 김장용쓰레기 무상 수거 나선다

정읍시가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김장용쓰레기 무상 수거에 나선다. 시는 오는 19일부터 12월 19일까지 김장쓰레기 특별수거 기간으로 정했다고 12

일 밝혔다. 시는 김장으로 인한 쓰레기배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무상수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기간 김장 관련 쓰레기는 속이 보이

는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다만 소금에 절인 김장용 배추와 양념류 등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나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수거된 김장쓰레기는 퇴비나 가축사료로 활용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 익산시, 내년 조직개편안 확정 6국 34과 4담당관 체제로 운영

익산시가 2019년도부터 6국 34과·4담당관 체제로 운영된다. 12일 익산시에 따르면 조직개편을 통해 지역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에 주력한다. 의회와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는 현행 1의회 2직속, 7사업소, 1출장소 체제로 운영된다. 조직개편에 따라 안전환경국이 신설되며 안전환경국은 기획행정국, 문화관광국은 경제관광국, 복지환경국은 복지국, 건설교통국은 건설국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또 정책개발담당관과 아동복지과, 도시전략사업과가 신설돼 현안문제에 대응한다. 도로공원과는 늘푸른공원과와 도로과로, 도시재생과는 도시개발과와 도시재생과로 분리돼 운영된다. 민생경제과는 일자리정책과,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산업과, 복지청소년과는 복지정책과, 여성보육과는 여성청소년과, 유적전시관은 왕도역사관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전국제전담당관과 경영개발과, 기초생활과, 공공정사추진팀은 폐지된다. 신설된 정책개발담당관은 부시장 직속 부서로 배정됐으며 아동복지과는 복지국으로, 도시전략사업과는 건설국에 편제됐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4급 서기관 1자리와 5급 사무관 1자리의 승진요인이 발생하게 됐다. 이번 개편안은 2019년도 상반기 정기인사부터 적용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국가정책과 지역 현안 수요 반영에 중점을 두고 개편안이 마련됐다"며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도시민 서비스를 강화하는 행정조직을 꾸리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 1~2년 안에 대박납니다. 투자가치 최고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공유지분, 300평
  - 대학교수, 건설회사,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됨(산64-21번지)
  - 매매 - 6000만원, 평당 20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

